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해결사' 부활 14일 KIA의 최희섭이 3타수 2안타 4타점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며 '해결사'의 부활을 알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최희섭 4타점 '폭발'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6 대 3 두산 제압

서재응 제구력 난조 … 3이닝 3실점 '부진'

'화끈한 해결사'와 '불안한 컨트롤의 마법사'

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빅리거 최희섭과 서재응의 희비가 엇갈렸다.

KIA타이거즈의 최희섭이 처음 출전한 시범경기에서 2루타를 포함 3타수 2안타로 4타점을 올리며 팀의 6-3 승리를 이끌었다.

14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두산과의 시범경기에서 최희섭은 5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화끈한 타격쇼로 자신의 부활을 알렸다.

최희섭은 선발투수 서재응의 제구력 난조로 팀이 0-3으로 뒤지고 있던 2회말 선두타자로 첫 타석에서 들어서 볼넷을 얻어 출루했다.

후속타 불발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던 최희섭은 3회말 2사 주자 1, 2루 상황에서 다시 타석에 들어섰다. 2번째 타석에서 최희섭은 두산 이원재의 초구를 받아 좌측 펜스를 맞추는 큼직한 2루타를 뽑아 2타점을 올리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KIA는 4회말 볼넷으로 출루한 권윤민이 송산과 이종범의 안타로 홈을 밟아 3-3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3-3 동점 상황이 계속되던 7회말 다시 최희섭에게 기회가 왔다. 두산 노경은으로부터 볼넷을 얻어 출루한 발데스가 도루에 성공한 뒤 포수 실책으로 3루까지 진출하고, 이현곤이 연속 볼넷을 얻어 1사 1, 3루의 상황을 만들었다. 4번 타자 나지완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투수 앞 땅볼로 물러나면서 2사 2, 3루 상황. 두산은 좌타자 최희섭을 의식해 좌완 이혜천을 올리며 추가 실점을 막으려고 했지만, 최희섭은 깨끗한 좌전안타로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 들이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경기가 끝난 후 최희섭은 "두통도 없고, 컨디션은 최상이다" 며 "정상 컨디션을 유지해 개막전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발투수로 나온 서재응은 3이닝 동안 3실점하며 마운드를 내려와 두 빅리거의 명암이 갈렸다. 1회 서재응은 첫 타자 오재원을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한 뒤 2번 타자 김재호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3번 타자 유재웅을 병살타로 요리하며 산뜻하게 이닝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2회 첫 타자 김현수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한 서재응은 이후 3개의 2루타를 맞으며 3실점했다. 이날 경기에서 서재응은 연속안타를 허용하는 등 제구력 난조를 보였다.

한편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 롯데의 경기는 SK가 8-2로 승리했다. 우리는 목동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2-1로 이겨 홈 첫 승을 기록했다. 대구에서 벌어진 삼성과 한화의 경기는 4-4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형태 9언더 4위 '껑충'

최경주 19위로 상승 … 맥도웰 12언더 선두

발렌타인 챔피언십 2R

제주도에 몰아친 강풍 속에 유럽프로골프 발렌타인 챔피언십 둘째날 순위가 요동을 쳤다.

낮게 깔리는 '스팅어 샷'으로 무장한 김형태(31·테일러메이드)는 14일 서귀포시 안덕면 핀크스골프장(파72·7천345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강풍으로 경기가 지연된 가운데서도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7개를 쓸어 담아 6언더파 66타를 쳤다.

공동 13위에서 출발한 그는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로 폴 맥긴리(아일랜드)와 함께 공동 4위까지 올랐다. 오전부터 몰아친 강풍으로 2라운드는 예정보다 2시간 15분 늦게 시작됐고 바람이 잦아든 오후에 출발한 선수들이 덕을 봤다.

그레임 맥도웰(북아일랜드)이 무려 8타를 줄이며 12언더파 132타로 단독 선두에 나섰고 지브 밀카 싱(인도)과 요한 에드포르스(스웨덴)가 10언더파 134타로 공동 2위에 자리했다.

한국골프의 간판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버디 4개, 보기 1개로 3타를 줄이며 중간 합계 4언더파 140타, 공동 19위로 둘째날을 마쳤다.

최경주는 "바람에 강한 드라이버로 바꾼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2~3m짜리 버디 퍼트를 몇차례 놓쳐 아쉽지만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40여명의 선수들이 일몰로 경기를 끝내지 못해 15일에도 순위가 크게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가을에만 2승을 올린 '가을 사나이' 김형태는 이번에는 제주도의 궂은 봄날씨에도 거센 바람을 꿰뚫는 샷으로 남은 라운드에서 선전을 예고했다.

12번홀까지 버디 2개, 보기 1개를 적어냈던 김형태는 13번홀(파4)부터 버디쇼를 시작했다.

13번홀과 14번홀(파3)에서 1타씩을 줄인 김형태는 다시 16번홀(파5)부터 18번홀(파4)까지 3연속 버디를 잡아내는 상승세를 탔다. 특히 18번홀에서는 두번째 샷이 그린을 넘겨 볼이 가장자리에 걸렸지만 10m를 남겨놓고 절묘한 칩샷으로 홀에 집어 넣어 기분좋게 2라운드를 마쳤다.

김형태는 "강풍이 부는 이번 대회를 대비해 볼을 스탠스 가운데에 놓고 손목 릴리스를 최대한 억제하는 샷을 집중적으로 연습했다"며 "타이거 우즈의 '스팅어 샷' 정도는 안되더라도 낮은 탄도의 샷을 날린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대회에 처음 출전한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도 안정된 경기를 펼쳤다.

10번홀에서 출발한 앤서니 김은 전반에는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후반에 버디 4개를 골라내며 1라운드와 똑같이 4언더파 68타를 때려냈다.

이틀동안 보기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앤서니 김은 중간합계 8언더파 136타로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 토마스 비욘(덴마크)과 함께 공동 6위에 자리했다.

전날 공동 2위였던 황인춘(34·토마토저축은행)은 열네번째홀까지 2타를 줄여 6언더파로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14일 제주 핀크스골프장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 발렌타인 챔피언십 2라운드 경기에서 최경주가 10번홀에서 이글을 놓친 후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현 양키스전 피홈런 2방 3실점

시범경기

김병현(29·피츠버그 파이리츠)이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두 번째 등판에서 홈런을 두 개나 얻어 맞고도 타선의 도움으로 멋쩍은 구원승을 챙겼다.

김병현은 14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탬파 레전드필드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원정 시범경기에서 7회 말 1이닝 동안 홈런 2개 등 4안타를 얻어맞은 끝에 3점을 내줬지만 8회 초 팀 타선이 4점을 뽑아낸 덕에 5-3 구원승을 올렸다.

김병현은 1-0으로 앞선 7회 말 팀의 네 번째 투수로 나와 주로 양키스 마이너리거를 상대했다. 첫 타자 4번 코디 랜섬에게 솔로 홈런을 내준 김병현은 저스틴 크리스천에게도 안타를 허용했고, 6번 로빈슨 카노에게 다시 2점 홈런을 두들겨맞았다.

월드컵축구 亞 예선 남북대결 장소

중국 상하이 훙커우 스타디움

오는 26일 열리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차전인 남북 대결 장소가 중국 상하이 훙커우(虹口) 스타디움으로 결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4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이 같은 대회 장소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북한이 평양 개최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에 난색을 표명하자 FIFA에 중재를 요청했고 FIFA는 '제3국 개최' 중재안을 낸 뒤 장소를 중국 상하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홈경기 개최권이 있는 북한축구협회와 경기장을 보유한 중국축구협회(CFA)가 협의를 거쳐 최종 훙커우구장으로 정했다.

한편 올림픽 예선 남북대결 경기 시작 시간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오후 7~8시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용대 남복·혼복 모두 8강

스위스오픈 배드민턴

한국 셔틀콕의 간판 복식조가 2008스위스오픈 배드민턴 슈퍼리시즈에서 8강에 안착했다.

지난 주 전영오픈 정상에 올랐던 남자복식의 정재성-이용대(이상 삼성전기) 조는 14일(한국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계속된 대회 사흘째 16강전에서 일본의 가와구치-가와메 조를 2-0(21-14 21-8)으로 물리치고 준준결승에 올랐다.

이용대는 이효정(삼성전기)과 짝을 이룬 혼합복식에서도 필리핀의 케네비 아순시온-케니 아순시온 조에 2-1(19-21 21-9 21-9)로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전영오픈 여자복식 우승자인 이경원(삼성전기)-이효정 조도 폴란드의 아우구스틴-코스튜칙 조를 2-0(21-16 21-15)으로 꺾어 8강에 합류했다.

여자복식 김민정(군산대)-하정은(대교눈높이) 조와 혼합복식 한상훈(삼성전기)-황유미(대교눈높이) 조는 16강에서 탈락했다.

골프·콘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지금「록펠러 회원권」이 오공특비스에서 월드컵 경기장 및 오아레포츠타운으로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광주에 일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상담문의 (062)351-0095

스포츠중계

15일(토)

▲2008 PGA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2R(04 : 00·SBS골프·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 시범경기〈SK : 한화〉(12 : 50·SBS스포츠)〈기아 : 롯데〉(13 : 00·MBC ESPN)

▲2008 유러피언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 3R(13 : 30·SBS골프)

▲07/08 프로농구〈KT&G : 전자랜드〉(14 : 50·XPORTS)

▲2008 K리그〈전북 : 서울〉(15 : 00·MBC ESPN)〈울산 : 포항〉(15 : 50·SBS스포츠)

▲07/08 V리그 플레이오프 여자부 1차전〈KT&G : GS칼텍스〉(17 : 00·KBS N SPORTS)남자부〈대한항공 : 상무〉(19 : 30·KBS N SPORTS)

16일(일)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더비카운티 : 맨체스터Utd〉(00 : 00·MBC ESPN)〈아스날 : 미들스브로〉(02 : 00·MBC ESPN)

▲2008 PGA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3R(04 : 00·SBS골프·SBS스포츠)

▲2008 서울국제마라톤대회(07 : 50·MBC)

▲2008 프로야구 시범경기〈기아 : 롯데〉(13 : 00·MBC ESPN)

▲07/08 V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 2차전〈GS 칼텍스 : KT&G〉(13 : 20·KBS1)

▲2008 유러피언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 FR(13 : 30·SBS골프)

▲07/08 V리그 남자부〈LIG손보 : 삼성화재〉(13 : 30·KBS N SPORTS)

▲2008 K리그〈광주 상무 : FC 경남〉(14 : 55·MBC)〈성남 : 수원〉(15 : 00·MBC ESPN)

월드컵 남북대결 '키 플레이어'

김남일·정대세 일본서 전초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맞대결을 앞둔 남북 축구대표팀의 키 플레이어가 일본 프로축구 무대에서 전초전을 갖는다.

〈南 김남일〉

〈北 정대세〉

'기 싸움'에 나서는 것은 '진공청소기' 김남일(31·빗셀고베)과 '북한의 루니' 정대세(24·가와사키 프론탈레)다.

김남일이 뛰고 있는 고베는 15일 오후 3시 홈 구장인 고베의 홈스 스타디움에서 정대세의 소속팀 가와사키와 2008 J-리그 2차전을 갖는다.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김남일과 스트라이커 정대세는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2차전 맞대결을 앞둔 남북 축구대표팀의 주축이라 이번 격돌은 관심이 크다.

올 시즌부터 일본에서 뛰게 된 김남일은 지난 8일 원정경기로 치른 FC도쿄와 J-리그 개막경기(1-1 무승부)에서 풀타임을 뛰며 무난하게 신고식을 치렀다. 정대세는 홈 경기로 열린 도쿄 베르디와 개막전에서 선발 출전해 공격포인트는 올리지 못하고 후반 24분 교체됐다.

김남일은 공격수 오쿠보가 복귀하는 이번 가와사키전에서 선발 출전이 확실하다. 다만 정대세는 지난 1차전에서 다소 부진해 현지에서는 교체 투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